

# 손학규, 측근 당직인선 강행 바른정당계 “민주주의 농단”

유승민-안철수계 반격나설 듯…사퇴 압박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주요 당직에 측근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자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다시 정면충돌했다.

유승민-안철수계의 거듭되는 사퇴 일부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가 핵심 당직에 측근들을 임명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여서 잠잠해지나 싶었던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정책 위원회장에 차이재아 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다시 협의하지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만 아니라 지난 날 회의 때도 협의했었다”며 “지난 금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했고 오늘은 발표할 예정이라 안건에 올리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중 1명이다. 손 대표의 인사 강행으로 최고위원회는 당권파 4명(손학규·주승용·차이재아·문병호)과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으로 진용이 꾸려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손학규 대표는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문병호 최고위원과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대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 전 대표를 겨냥,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공식 당대표는 아니지만 창당 주역이고 얼굴’이라며 “불참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 반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 절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개헌에 미온적이란 느낌을 줄 수 있다. 우리 당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 정당이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즉각 이 최고위원은 “당장 SNS에서도 넋을 주리는 아주 잘 쓴 글이 올라와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비난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당내 주축 3명 중 1명이 유승민 대표라면 그런 인신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 측 인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입현경 전 사무부총장은 “청원 지원 유세에 오셔서 술 드시고 지원유세하고 하니까 당 지지율이 나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최고위원은 “술 먹고 지원 유세한 적이 없고 당원들 요청으로 회식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의 중 손 대표가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집단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 대표가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손 대표와 손 대표 분신이 임명한 사람 외에는 누가 남는지 알고 싶다. 집단抵制제에서 혼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방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교감한 사실이란 점을 일리며 “당 대표가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시도한 뒤 다시 한 번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손학규 대표는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문병호 최고위원과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대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 전 대표를 겨냥,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공식 당대표는 아니지만 창당 주역이고 얼굴’이라며 “불참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 반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 절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개헌에 미온적이란 느낌을 줄 수 있다. 우리 당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 정당이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즉각 이 최고위원은 “당장 SNS에서도 넋을 주리는 아주 잘 쓴 글이 올라와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비난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당내 주축 3명 중 1명이 유승민 대표라면 그런 인신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 측 인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입현경 전 사무부총장은 “청원 지원 유세에 오셔서 술 드시고 지원유세하고 하니까 당 지지율이 나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최고위원은 “술 먹고 지원 유세한 적이 없고 당원들 요청으로 회식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의 중 손 대표가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집단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 대표가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손 대표와 손 대표 분신이 임명한 사람 외에는 누가 남는지 알고 싶다. 집단抵制제에서 혼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방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교감한 사실이란 점을 일리며 “당 대표가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시도한 뒤 다시 한 번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박지원 “유시민, 정계 복귀할 것…대선 후보로 발언 진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8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정계복귀 요청에 유 이사장이 원래 자기 머리는 못 낚는다’고 불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그러면서 “저는 유 이사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환영한다”며 “진보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런 분들이 함께 강한 경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후보가 나타날 수 있고 상당한 흥행도 되기 때문에 꼭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헛별정책을 훼손하지 않기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



한국당 대표와 익수를 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공격에 대해 “날을 가리켰으면 날을 봐야지, 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황 대표가 앞으로도 광주를 자주 찾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려 가는 것”이라며 “수박 걸撼기식으로 자기 지지층 태극기 부대와 민세 부르는 민생 탐방을 해봐야 뭐 하나”고 일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과 접촉해 ‘비른미래당’으로 와서 유승민을 물어내자’고 이야기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손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ش 것”이라고 짚게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진보개혁 정권 재창출 위해 대선 출마 환영’

### ‘대북송금 특검’ 발언엔 “부적절” 재차 지적

### 황교안, 광주 재방문 의사에 “불지르려 가”

알릴레오’에서 대답을 할 때 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와 단독 면담을 많이 하자’ 했더니 (유 이사장) 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물론 농담이었지만 농담을 가짐에서 (정계복귀 쪽으로) 상당히 진전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도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육하라”며 “당내 주축 3명 중 1명이 유승민 대표라면 그런 인신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다녀온 박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자유

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지만 세월이 흘러 함께 손잡고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며 “지금은 더욱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단합해서 대북 문제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다녀온 박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자유

## 조경태 “5·18, 더이상 광주·민주당 전유물 아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더 이상 5·18은 광주의 전유물,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민금 신지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축구했다.

조 의원은 “5·18 기념식은 진실으로 통합과 화합의 기념식이 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일부 둘지각한 분열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등과 분열의 반복되며 기념식 되고 말았다”며 “정치권은 기념식 전부터 편 가르기

### “대통령, 기념식서 ‘독재자의 후예’ 라며 국론 분열 앞장”

### ‘전두환에 사형 선고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 후예인가’

의에서 “5·18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으로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 공세로 국론 분열의 면모를 살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에 일관해왔고 심지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로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

**湖 南 新 聞**

형선고 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인가 하나회 척결로 군부가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개혁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정당이다. 만약 김영삼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98년 특별 담화로 문민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고, 5·18 민주묘지도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별 미리보기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